

야외활동 자제...비수기에 불비는 백화점·영화관

‘슈퍼 폭염’ 시대

〈2〉폭염에 달라진 생활경제

전국을 뒤덮은 폭염이 여름철 피서와 여가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무더운 날씨 탓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백화점과 영화관 등 쇼핑·문화시설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21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광주신세계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시즌상품인 양산과 선글라스 등이 21.6%나 신장하면서 매출상승을 견인했고, 여름철 대표

광주신세계·롯데 광주점 ‘여름 특수’

쇼핑 피크 시간대도 바뀌어

더위에 백화점내 식당가 매출 올라

극장가도 뜻밖의 ‘대목’ 누려

휴가철 해수욕장 방문객 줄어 올상

상품인 스포츠 부문은 8.3%,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부문도 6.4% 신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같은 기간 에어컨 매출 103.5% 신장과 스포츠레저 상품군 7.8% 신장 등을 앞세워 전체 매출이 7.4% 증가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더위를 피해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체 매출도 덩달아 늘었다”며 “전통적인 ‘비수기’인 여름에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폭염이 낳은 이례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백화점 쇼핑시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영업시간대별 매출을 살펴보면 30분간 실적이 하루 매출 중 5% 이상의 매출 구성비를 보이는 이른바 ‘피크 시간대’가 전년 오후 2시~6시에서 최근 오후 1시30분~6시30분으로 1시간 정도 늘었다. 특히 롯데아울렛 3개점(월드컵·수완·남양)은 오후 1시~6시30분으로 1시간 30분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시원한 오전이나 저녁보다 한낮에 쇼핑몰을 찾

는 사람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백화점 내 식당가 매출도 크게 오른 반면, 신선식품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폭염에 채소와 수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지만, 더위에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보다 외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신세계의 전문식당가의 경우 지난해보다 12.5% 매출이 증가했고, 즉석요리를 판매하는 델리 매장도 6% 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당가 델리 역시 무더위 피하기 위해 실내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매출이 13.8%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광주지역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매출은 1.7% 떨어졌다. 채소류와 수산물이 각각 3.2%, 5.9% 하락했으며,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먹을 수 있는 냉동냉장식품의 매출은 2.4%가 늘었다.

사람들이 실내로 몰리면서 극장가도 뜻밖의 ‘대목’을 특출히 누렸다. 롯데시네마 광주점의 지난 7월 고객수가 지난해보다 45% 증가했고, 8월에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92%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지역 유통가가 폭염 특수를 누린 것과 달리 전통적 피서지인 해수욕장은 방문객이 줄면서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날 현재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개장 이후 41만명이 찾아오면서 지난해 56만명보다 피서객이 15만명(26.8%)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사십리 해수욕장 한 상인은 “햇볕이 뜨거워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기가 힘들 정도인 데다, 그늘 아래 있어도 더운 탓에 방문객이 크게 줄었다”며 “한철 장사를 하는 지역민들의 올해 매출도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민주당 전대 D-3...후보들이 말하는 막판 판세

송영길 “호남 바람에 승기 잡았다” 김진표 “수도권 우세로 막판 역전” 이해찬 “큰 이슈 없어 대세론 여전”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인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는 각기 승리를 자신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가 22일 마무리 되면서 전체 투표 비율의 45%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당권 주자들은 대의원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과 대상을 막판 지지로 호소하고 있다.

우선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뒤집어졌다’는 입장이다. 세대교체로 상징되는 변화의 욕구가 송 후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대의원 대회사 지역위원장 등을 방문하면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을 확인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 불어온 송영길 바람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반에 확산되면서 지난 주말부터 판세 역전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송 후보를 지지했다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송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세대교체와 변화에 대한 당원들의 호응도가 기대 이상이다”며 “특히, 친문과 친노를 넘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미래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고하게 형성되고 있어 승리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지역 민심도 호남 주자 송 후보가 이번에는 ‘호남 프레임’을 극복하고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것인 지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진표 후보 측에서도 역전을 자신하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면 세 후보 모두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대의원 투표에서 강점이 있는 김 후보의 막판 역전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에서는 현재 50명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확장성에서 타 후보를 압도하고 있고, 경기도가 지역구라는 점에서 대의원 규모가 가장 큰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실한 우세에서 막판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가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길이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으면서 ‘경제 대표론’을 내세운 김 후보 지지세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해찬 후보 진영에서는 ‘대세론’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송영길·김진표 후보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이슈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반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가 전국적 네트워크를 풀기 힘들면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지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대의원의 표심도 결국 정치적 역량을 갖춘 이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세론이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 진영에서는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결국 전당대회 결과는 여론의 흐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후보 진영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돌리는 등 막판 혼탁 경선이 이뤄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예결위 출석 얘기 나누는 이낙연-김동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김동연-장하성 의견차 있지만 목적지는 같아”

“최저임금 만약의 근원이라는 것 동의할 수 없어”

청와대는 21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엇박자’가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 목표)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차이가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라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생각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정부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두 분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인식과 진단이 같으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큰 상황 대한 인식,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앞으로 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해 같은 방향이고 같은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점도 있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이나 진단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반년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통계상으로 (원인이) 보이면 좋겠으나 명징하게 드

러나지 않는 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며 “그에 대한 대책은 확장예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확장 재정 정책을 두고 야권이 ‘퍼주기’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득주도성장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만약의 근원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것을 면밀히 보면서 다음 과정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 [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 [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휴가 연휴, 가을, 연인과 함께...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 [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를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박(1인실) 여행보험

• 특식 2회, 리프트식 3회, 코코넛 오일(오리 드라이빙) & 코코넛 비누 1SET(제공) • 필리핀 현지 공항세(700페소/1인당) 포함

• 체일다이빙 무료강습, 라우라비 디스카버리 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아벨라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또는 마탄성당, 마탄수리안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텔투어(세부도 중심)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합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대만, 화련, 지우펀, 아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아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대표전화: 062-234-3222

조이투어 F A X : 062-234-3141

JOY TOUR CO., LTD.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여행 길이 늘거든 동반자!!! http://www.joytour.kr

이민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푸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회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통 기내(여행비용: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회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약관)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인원: 기사/가이드 명사,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행 편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